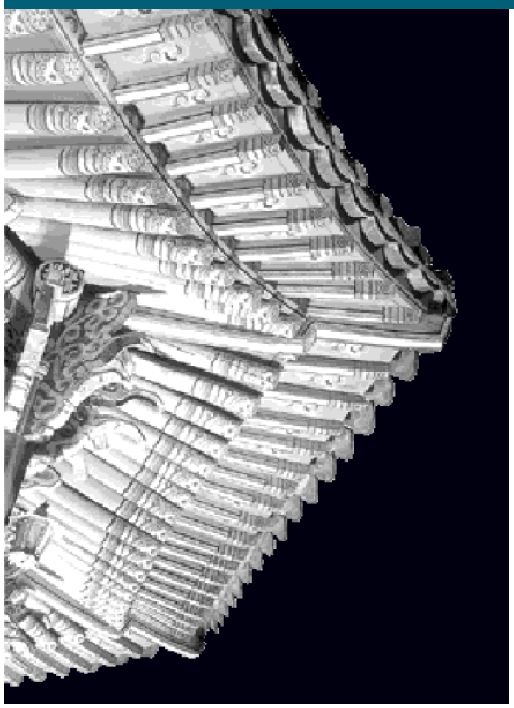

경복궁 종소리

장영실의 측우기

관기의 아들

'발명의 보고'라고 불리우게 되는 장영실의 어린시절은 참으로 불행했다.

이는 그의 신분 탓이기도 했다.

조선의 신분제도에 있어서 노비와 같은 천한 출신이 글을 배운다는 것은 큰 죄에 속했고, 신분 상승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장영실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남달리 총명했고 지혜로웠다. 그런 장영실이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째서 난 공부를 해서는 안되는 것일까? 공부하고 싶다. 무엇이든 배우고 싶다.'

영실은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서늘한 바람이 영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커다란 느티나무가 두 팔을 벌린 채 햇빛을 쬐고 있었다.

"저 나무는 햇빛을 쬐고 싶으면 쬐고, 땅속에서 먹고 싶은 양분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어린 영실은 복잡한 마음을 쓸어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가서 앉았다.

"나무야, 너는 참 좋겠구나. 난 나무만도 못한 것일까?"

커다란 느티나무를 쓰다듬으며 소년이 중얼거렸다.

불을 삼킨 것 같은 눈부신 햇빛이 소년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하늘천, 따지, 검을현 ····· ."

영실의 입에서 서당에서 들은 천자문이 리듬을 타고 흘러나왔다. 영실의 소리가 공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야! 그관기의자식놈이다."

천자문외우는것에넋이나갔던영실을흔들어깨우는소리가들렸다.

저멀리서글공부를마친서당아이들이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의눈엔경멸과야유, 분노가서여있었다.

"이놈, 천한자식이감히글을배우려하다니."

영실을향해커다란돌멩이가날아들었다.

어린영실은이마를후려쳐피가떨어지자비명을질렀다.

"아아악."

영실의이마에서붉은핏줄기가흘러내렸다. 순간서당아이들이몰려들었다. 영실을향해발길질과욕설이쏟아져내렸다. 어디서구한것인지작은막대기로영실의등과허리, 허벅지와몸의구석구석을때렸다.

"아이구, 아야야, 억."

피투성이가된영실은자신의정신이희미해지는것을느꼈다. 말로만듣던지옥의나락으로떨어지는것같았다.

한동안의술렁거림이가라앉자서당아이들은제갈길로갔다.

"퉤퉤, 송충이는솔잎을먹어야지, 갈잎을먹으면죽는법이야. 뱁새가황새를쫓아가다가는가랑이가찢어지는것도모르냐?"

어린영실의볼위로눈물이흘렀다.

영실은고통스러웠다. 웅크린영실의등뒤로해가지며붉은노을이퍼져갔다.

다음호에계속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관리지원팀장
왕연중 記